

수성대학보

17.Jun 2026

Vol. 340



학교 소식

메디뷰티선도센터(MBLC), 지역
소외계층 대상 '재능나눔 봉사' 펼쳐

두봉골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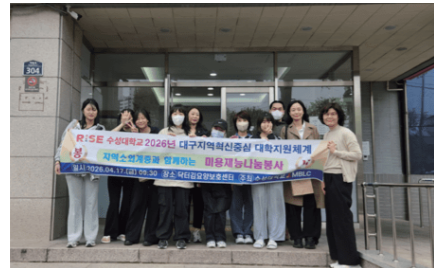
너의 플레이
리스트를 들려줘

사설

AI 고등직업교육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



캠퍼스 뉴스



메디뷰티선도센터(MBLC), 지역 소외계층 대상 '재능나눔 봉사' 펼쳐

수성대학교(총장 김선순) 메디뷰티선도센터(MBLC)가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핵심 가치인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수성대 MBLC는 17일, 대구 소재 닥터김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피부건강관리학부 재학생 및 직업훈련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케어 헤어커트 등 전공 직무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결합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실천적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보경 메디뷰티선도센터장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기술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는 과정을 보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대 MBLC는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커피 한 잔에 담은 나눔"…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수자봉 카페' 청년 참여 이끌어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수성구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교내에서 '수자봉 카페' 홍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이동형 커피차를 활용한 찾아가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친근하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캠퍼스 내에 마련된 '수자

봉 카페'를 찾은 학생들은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의 가치와 다양한 참여 방법을 안내받았다.

행사장에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안내 ▲현재 지역 내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봉사 프로그램 소개 ▲개인별 맞춤형 봉사활동 상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막연하게 봉사를 어렵게만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즉석에서 추천해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가 뜻깊은 봉사 정보를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자원봉사가 우리 대학 생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과제빵커피과, 'K-베이커리' 전문 인재 양성 결실

제과제빵커피과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제과·제빵 경연대회에서 주요 상을 휩쓸며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성대 제과제빵커피과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제과·제빵 경연대회에 출전해 금상 2명을 포함, 총 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성과는 1학년 신입생부터 2학년 재학생까지 고르게 수상 명단에 이름

을 올려, 학과의 체계적인 실기 교육 커리큘럼이 학년과 관계없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회 참가와 더불어 수성대는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학생들의 현장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수기업 탐방 및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대회장인 서울 코엑스를 방문해 글로벌 베이커리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한 데 이어, 17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대전 '성심당'을 찾았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현장 견학과 함께 성심당 관계자의 특별 강연을 청취하며,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와 베이커리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장인 정신을 배웠다.



방사선과,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상 수상

방사선과가 지난 25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차후영홀에서 '2026년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제23차 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는 의료영상관리 및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며, 일본의료영상관리학회와의 국제 교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PACS 관리, 선량 관리, 안전관리, 영상정보 보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을 현실로, 미래 의료를 함께 여는 KMIAA'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제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방사선과 재학생 장엘 학생은 재학생 논문발표 부문에서 논문상(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엘 학생은 '영상의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한 방사선과 재학생 인식 연구'를 주제로 학술 구연 발표를 진행하며, 의료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우리 대학 방사선과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중심 지도 역량이 반영된 결과로, 재학생의 연구 참여와 학문적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사선과 학과장 장현철 교수는 "앞으로도 의료영상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방사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경광학과 '안나래' 봉사단, 어린이날 맞아 리오바 어린이집서 '눈 건강 나눔 봉사'

이번 행사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눈 건강 지킴이'를 자처한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봉사단은 리오바 어린이집 재원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시력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채로운 맞춤형 눈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나래 봉사단원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초 시력 검사와 색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꼼꼼하게 실시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노출이 잦은 아이들의 환경을 고려해 ▲올바른 스마트폰 시청 거리 유지하기 ▲함부로 눈 비비지 않기 ▲눈 건강에 좋은 음식 알아보기 등 실생활에서 아이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예방 교육을 놀이와 접목해 병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공 역량 발휘해 지역사회 경로 호친 실천

우리 대학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전공 연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나섰다. 지난 5월 8일 대구 수성구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6학년도 어버이날 기념 황금 호 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 전공 역량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정서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학과는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 상담을 진행했고 치기공과는 틀니 세척과 사용법 안내, 구강 상태 점검을 지원했다. 안경광학과는 무료 시력 검사와 돋보기 관리 교육을 운영했다. 뷰티스타일리스트과와 피부건강관리과 학생들은 네일아트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미술심리보육과는 손등 페인팅과 꽃 풍선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정서 교감 활동을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행사 현장에서 어르신 기념사진 촬영을 맡아

어르신들의 추억 만들기를 도왔다. 이번 활동을 대학 핵심역량 인증제인 IST 인증제와 연계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은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해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반려동물보건과, 유기견 보호소 봉사 활동... 전공 실무로 생명 존중 실천

반려동물보건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전공 역량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수성대는 반려동물보건과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지난 5월 8일 경북 성주군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미용과 위생 관리,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학과 실습 교과목과 연계해 운영됐으며, 위생 관리가 어려운 환경에

농인 유기견들의 건강 회복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은 유기견들의 미용과 위생 관리에 집중했다. 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털이 심하게 엉켜 피부 질환 위험이 있는 유기견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진행했다. 유기견 상태에 맞춘 세심한 관리와 위생 처치를 통해 동물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미용 활동과 함께 견사 청소와 보호소 환경 정비 작업도 병행했다. 견사 내부 소독과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유기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사람을 경계하던 유기견들이 미용 후 한층 편안해진 모습을 보여 보람을 느꼈다며, 학교에서 배운 전공 기술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용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전공 역량을 실천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며, 전문적인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실현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간호학과, 사제동행 프로그램 사진전 개최

간호학과는 5월 7일 교내에서 사제동행 프로그램의 훈훈한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전 ‘같이의 가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간호학과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평생지도교수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강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교수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 온 소중한 시간들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되돌아보고자 기획된 뜻깊은 행사다. 전시 공간에는 사제 간에 진행된 밀착 멘토링, 진로 상담,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 등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담긴 다수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과 교수진은 사진 속에 담긴 추억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배움과 공감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예비 간호사로서 겪는 학업적 스트레스와 임상 실습 등에 대한 고민을 지도교수와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이 사진 곳곳에 자연스럽게 묻어나, 전시를 관람하는 재학생들에게도 큰 공감과 위로를 선사했다는 평이다. 이해경 간호대학 학장은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이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전공 역량 강화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실무 능력과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간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농상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우리 대학은 지난 14일, 대구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에 위치한 마늘 재배 농가를 방문해 ‘2026학년도 1학기 도농상생 대학생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이종고를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한편, 대학 구성원들이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도농 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30명과 교직원 5명 등 총 35명의 봉사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도착한 봉사단원들은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마늘쫑 뽑기’ 작업에 투입되었다. 서툰 솜씨지만 농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재학생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 농가에 와서 직접 땀을 흘려보니, 밭상에 올라오는 농산물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깨달았다”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가 어르신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했고, 우리 농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간경비교육센터-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수성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와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2026년 6월 10일 수성대학교 경복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수성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는 교육생에게 양질의 민간경비 신입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생에게 센터의 취업지원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민간경비교육센터 교육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교육생 모집 및 취업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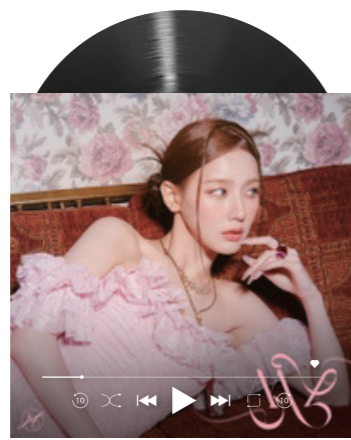


너의 플레이 리스트를 들려줘



여행_볼빨간 사춘기
구도연 (수습국원)

제가 여름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볼빨간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이 노래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름이 주는 자유롭고 설레는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방학, 휴가, 바다, 친구들과의 여행처럼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순간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행」은 그런 계절의 기분을 밝고 경쾌한 멜로디로 잘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더운 여름날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걸을 때 이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면 답답했던 기분이 조금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행을 가는 길에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창밖의 푸른 하늘과 풍경이 노래 분위기와 잘 어울려서 아직도 여름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곡이 되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지치거나 반복되는 일상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Drive_미연
장엘 (방송국장)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한 학기 동안 달려온 자신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하며, 이 곡과 함께 여름방학을 시작해 보는건 어떨까요? '두려움은 잊고 이 바람을 느껴 뒤돌아보지 말고 나의 길을 믿어봐 목적지는 없어 이 핸들을 잡은 건 나니까 저 쏟아지듯 펼쳐진 길위로 내 모든 걸 던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 가사를 듣고 있으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시험과 과제,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루는 이들이든 마음 가는 대로 여름을 즐겨보세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도 만들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햇살처럼 반짝이고, 여름만이 선사할 수 있는 멋진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도 만들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Take Me To The Beach (feat. Ado)_Imagine Dragons
민경민 (수습국원)

이매진 드래곤스의 "Take Me to the Beach"는 답답한 일상과 타인의 숨 막히는 간섭을 벗어나 오직 나만의 자유를 찾아 바다로 떠나는 짜릿한 해방감을 선물하는 곡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날 해변으로 데려가 줘(Take me to the beach)"라는 직관적인 후렴구는 듣는 순간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릴 듯한 청량함을 주며, 당장이라도 푸른 바다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완벽한 여름의 설렘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일본의 괴물 보컬 아도(Ado)의 피처링이 더해지면서 원곡의 시원함은 한층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아도 특유의 파워풀하고 날카로운 음색은 척박하고 차가운 현실을 은유하는 '산과 눈'을 박차고 나가자는 가사의 확고한 메시지에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불어넣습니다. 댄 레이놀즈의 청량한 보컬과 아도의 압도적인 가창력이 조화를 이룬 이 곡은, 뜨거운 여름날 푸른 바닷가를 가르며 달리는 드라이브나 활기찬 바캉스의 순간에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시원함과 짜릿한 원동력을 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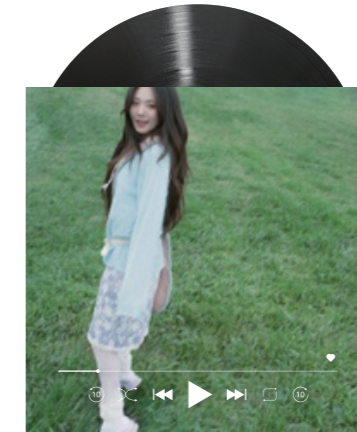
뜨거운 안녕 (feat. 성시경)_싸이
여름,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왔다는거니까요
주어진 환경들에 불평불만 하기보다 최선을 다했길 바라며 남은 한해들도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며 아껴주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을 최대한 즐

권재혁 (수습국원)
겨야겠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겨울에는 만날수 없으니 얼굴에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햇빛을 맞을겁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면 산책도 잊지않고 하렵니다. 모두 자기의 행복들을 향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아 부탁해_인디고
김영은 (수습국원)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여름 노래는 역시 옛날 노래가 최고야"라며 틀어준 노래가 바로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지금은 가사도 멜로디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 그날의 기분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노래가 좋아서였는지, 함께했던 시간이 즐거워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제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당시의 풍경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면 날씨가 덥지 않았다면 탁 트인 바다의 시원함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소중함도 지금처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애써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행복이 사실은 일상 속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여름에도 작은 행복과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Find You_볼빨간 사춘기
이다은 (수습국원)

제가 여름에 추천하는 노래는 볼빨간사춘기의 「Find You」입니다. 이 노래를 여름에 추천하는 이유는 시원하면서도 청량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더운 여름날의 답답함을 잠시 잊게 해주고, 마치 푸른 바다나 맑은 하늘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볼빨간사춘기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더해져 듣는 사람의 기분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이 노래를 자주 듣는데,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들으면 더욱 좋은 느낌이 듭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설렘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 여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Find You」를 들으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Summer_The volunteers
김우철 (편집국장)

각자의 계절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중 여름은 특유의 물기를 가득 머금은 냄새와 적당한 풀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신비한 냄새가 있는 계절입니다. 제멋처럼 여름 그 자체인 노래를 듣고 있지 않다면 더운 것을 싫어하는 까닭에 여름을 반기지 않았지만 노래와 지난날 느꼈었던 여름휴가를 통해 여름마저 나름대로 필요한 이유가 있는 계절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의 여름 플레이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필수 곡이며 더위가 시작될 때쯤 자연스럽게 재생하게 되는 노래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여름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다고 궁금해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습니다. (차디찬 겨울이 제 취향입니다.)



신고합니다 대학언론사 수습기자



구도연_신입국원

안녕하세요 피부건강관리학부 1학년 구도연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보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다양한 이야기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 안의 여러 소식과 학우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학보사의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활동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학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MBTI는 ISTP로 차분하고 현실적인 편이며,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려고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고 새로운 환경이나 활동에도 꾸준히 적응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성향이 취재나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꼼꼼함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학보사 활동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국원이 되고 싶습니다. 학우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함께 활동하게 될 국원분들과도 좋은 경험 많이 쌓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학번 피부건강관리학부 이다은입니다.

저는 20살로,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학보사 활동을 통해 학교의 다양한 소식과 학우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취재와 기사 작성에 임하며,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기자가 되어 학보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민경민_신입국원

읽고 싶어 손이 가는 트렌디한 신문을 만들 민경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읽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트렌디한 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재미있는 기획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신문을 모두가 등교하자마자 찾아보는 '인기 매체'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다은_신입국원



천마가 제자를 잘키움 딱복이최고



Q. 누구인지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A. 네이버 시리즈에서 웹소설을 연재 중이며, 수성대학교 웹툰웹소설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작가 '딱복이최고'입니다.

Q. 어떻게 작가로 데뷔하게 되신 건가요?

A.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과에서 진행하는 전국고교생 웹소설 공모전을 통해, 웹소설과 학교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데뷔, 입학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연재 중인 '천마가 제자를 잘키움'은 어떤 소설인가요?

A. 전생에 천마였던 주인공이, 환생 후 제자들을 키우며 힐링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Q. 언제 연재를 시작했나요? 준비하는 데 오래 걸렸나요?

A. 부끄럽게도, 글을 쓰는 속도가 많이 느리기도 하고 첫 작품 인지라, 작품을 준비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런칭 분량을 완성하는 데, 1년 정도 걸렸네요.

Q.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나요?

A. 무협 소설을 접하게 되면서, 무림이라는 세계와, 무인에게 엄청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무협 소설을 읽던 중 천마라는 비인간적인 캐릭터성을 가진 존재를 이용하여 인간적인 글을 써 보면 어떨까? 하고 글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Q. 작품의 성적은 어떠한가요?

A. 첫 작품인 만큼 썩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Q. 학과가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A. 아주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루틴이나, 작법 등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글을 쓰는 분위기나,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의 피드백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Q.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A. 협과 천마라는 캐릭터에 매료되어 시작한 첫 작품이 이렇게 연재되기까지, 학과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늘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밤을 새우며 글을 쓰는 동기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수성대 웹툰웹소설과의 작가로서, 또 독자님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작가 '딱복이최고'로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N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웹소설 원작 웹툰의 드라마화

지난 5월 11일 tvN 새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가 베일을 벗었다. 방영 전 '군대 요리'라는 다소 미이러한 소재에 우려의 시선도 있었으나, 베일을 벗은 드라마는 첫 주 시청률 5.8%로 출발해 입소문을 타고 5회 만에 7.1%를 돌파하며 하반기 안방극장의 최대 이변으로 떠올랐다. 국내뿐만 아니라 티빙(TVING) 등 OTT 플랫폼에서도 실시간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며 군필자들에게는 향수를, 미필자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총 12부작으로 기획된 이 작품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평범한 취사병이 의문의 '요리 상태창'을 보게 되면서 절대적인 손맛을 가진 전설의 셰프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휴먼 드라마이다.

중요한 건 이 드라마가 <폭군의 셰프>, <내 남편과 결혼해줘>처럼 이미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동명의 메가 히트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작품은 웹소설의 흥행에 이어 웹툰화까지 성공을 거둔 후 드라마로 제작된 케이스다. 검증에 검증을 거친 IP(지식재산권)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단순한 한화적 상상력의 재현을 넘어 어떻게 대중적인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을까?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기본적으로 웹소설·웹툰 특유의 '성장형 레벨업'이라는 판타지 서사를 군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에 이식했다. 군대 요리는 흔히 '짬밥'이라 불리며 대량 조제와 맛없는 식사의 대명사로 통하지만, 주인공 강성재가 게임 퀘스트를 깨듯 조리 기술을 습득하고 군대 급식을 고급 레스토랑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드라마는 원작 웹툰의 '사이다' 감성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드라마라는 매체에 맞게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대폭 보강했다. 자칫 평면적일 수 있었던 취사반장과 선호임 캐릭터들에게 입체적인 스토리를 부여하여, 일반적인 요리 판타지를 넘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피어나는 '끈끈한 전우애'와 '인간



성장 드라마'로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덕분에 군대 문화가 낯선 글로벌 시청자나 여성 시청층까지 거부감 없이 극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웹툰 속 평면적인 그림으로만 존재했던 요리들이 드라마의 화려한 영상미와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났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찌내듯 볶아내던 제육볶음이 불맛 가득한 예술품으로 재탄생하고, 투박한 군대 식판 위의 요리를 먹고 리액션이 펼쳐지는 순간은 기상천외한 반응(미각보이즈 리액션 등)으로 최고의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상태창'이라는 시각적 CG 효과를 과하지 않고 위트 있게 연출하여 웹툰적 재미를 살리는 한편,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박지훈 배우의 경우, 16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또다시 메가 히트를 만들어내는 배우로 생활 연기가 더해져 극의 몰입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이제 웹소설과 웹툰을 거쳐 드라마로 이어지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의 선순환 구조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그리고 영상과 오디오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원작의 핵심 매력인 '성장'과 '힐링'이라는 코어를 잃지 않으면서도,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변주를 영리하게 해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뻘하고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 흥수 속에서, 군대 요리라는 이색적인 소재와 웹툰적 상상력을 결합해 웰메이드 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시청률과 화제성, 원작으로의 독자 유입까지 모두 거머쥔 이 맛있는 반란은, 앞으로 웹툰·웹소설 IP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영화로 보는 '휴먼케어' 영화 <군체>의 '폭력적 전체주의 비극'

우리에게는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등 장르물 영화로 잘 알려진 연상호 감독이 새로운 좀비 영화 <군체>를 발표하고, 관객 500만 이상을 동원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서울의 초고층 빌딩에서 생명공학 관련 발표 행사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갈등과 소통의 오류에 환멸을 느낀 '서영철(구교환)'은 감염자들의 지능이 하나로 연결되는 '군체'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감염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빌딩을 봉쇄하고, 그 안에 있던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고립됩니다.

좀비가 된 감염자들은 처음에는 짐승처럼 기어다니다가 점점 진화하며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사람을 식별하며 무리를 지어 감염되지 않은 생존자들을 공격합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생명공학자 '권세정(전지현)'은 생존자들과 함께 바이러스를 퍼뜨린 '서영철'을 생포하여 구조대가 기다리는 옥상으로 향합니다.

영화는 폐쇄된 빌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재난을 그립니다. 이곳에 퍼진 바이러스는 기존의 좀비 바이러스와 다릅니다. 감염자들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하나로 동기화되어, 거대한 하나의 지능인 '군체(Colony)'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군체'는 '같은 종류의 개체가 많이 모여서 공통의 몸을 조직하여 살아가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영화 <군체>는 한국 좀비 영화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대 사회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꼬집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어뜯고 감염시키는 좀



비를 넘어, AI 대전환을 맞이한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영화에서 '서영철'은 정보와 의식이 일체화된 좀비들의 모습을 '진화'라고 부르고,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여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 통일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빌딩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권세정'은 다릅니다. '권세정'은 좀비들을 피하고, 물리치며 치열하게 생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영철'의 '완벽한 통일'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지 고발합니다.

영화에서 감염되지 않은 생존자들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끝내 연대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군체'가 된 좀비들이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갈등이 없다고 하지만 개인의 자아와 자유의지가 제거된 인간은 생명체라기보다 기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 <군체>는 '서영철'과 '권세정'의 대립을 통해 인류의 진정한 진화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 완벽하게 연결된 무결점의 사회(군체)보다, 결함투성이일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끄러운 세상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림안과 눈 건강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인다

프리미엄 안과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

먼저, 최근 기업 복지는 비용 지원을 넘어,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모니터 사용, 스마트폰 사용, 렌즈 착용 등으로 눈 피로와 안구건조를 겪는 직장인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눈 건강 관리는 중요한 복지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림안과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임직원의 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 제휴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안중합검사, 안구건조 관리, 시력교정, 노안·백내장 진료, 수술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남권 직장인을 위한 우수한 접근성

올림안과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6 리안빌딩 2-5층에 위치해 있으며, 언주역 6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강남·역삼·언주권 사이에 자리한 입지적 장점은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퇴근 전후, 예약 진료 시간을 활용해 방문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업 제휴 복지는 임직원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올림안과는 접근성 높은 위치와 체계적인 진료 동선을 바탕으로, 직장인의 일상 안에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의료복지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안과 중심의 폭넓은 전문 진료 체계

올림안과는 시력교정, 노안·백내장, 눈건조클리닉, 결막이완술, 소아 근시 클리닉 등 다양한 안과 진료 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식·라섹·스마일·ICL과 같은 시력교정부터 단초점·다초점 백내장 수술까지 폭넓게 대응하며, 연령대와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눈 건강 수요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 피로, 안구건조, 시야 불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안과는 정기 검진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임직원의 눈 건강을 예방적·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검사부터 수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의료 시스템

올림안과는 2층 접수·수납, 3층 검사·진료, 4층 올림클리닉, 5층 수술실로 공간이 구성되어 검진부터 진료, 클리닉, 수술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능별로 분리된 의료공간은 환자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 경험을 제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안중합검진을 기반으로 개인별 눈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눈 건강 관리 체계를 지향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LOL)는 전 세계 최정성급 인기를 누리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배틀 아레나(MOBA) 게임입니다.

수억 명의 유저를 자랑하는 이 게임의 가장 큰 대회인 '2023 월드 챔피언십(졸여서, 푼드컵)'의 우승팀이자 역사상 최강팀으로 뽑히는 T1 선수들(메이커/오너/제우스/케리아/구마유시)께서 제휴 안과인 그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메이커(이상혁 님), 제우스(최우재 님)와 함께!



오너(문현준 님)를 응접실서 후 진료중



메이커(이형민 님)와 함께!

프로그래머는 직업상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며 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제휴 의료복지 프로그램

올림안과의 기업 제휴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 종합검사, 눈 건조 IPL, 듀얼토닝, 비타민수액, 블레파크린 제공 등 일상적인 눈 건강 관리부터, 라식·라섹·스마일·백내장 수술 제휴 혜택까지 폭넓게 연계됩니다. 기업은 복지 예산과 대상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여 선택형 복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검진·관리·수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산 통제가 가능하고, 임직원 입장에서는 체감도 높은 의료복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휴 모델입니다.

임직원과 가족까지 확장되는 복지 가치

올림안과 제휴 프로그램은 임직원 본인과 가족에게도 혜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가족 수술 시 동일 제휴 혜택 적용, 동반 수술 및 당일 수술 할인, 효도 안중합검진권 제공 등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복지의 범위를 넓히는 요소입니다. 기업 복지는 구성원의 만족도뿐 가족의 체감도까지 함께 높일 때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올림안과는 임직원의 눈 건강 관리에서 나아가 가족복지까지 연결되는 의료복지 파트너로서, 기업의 건강친화적 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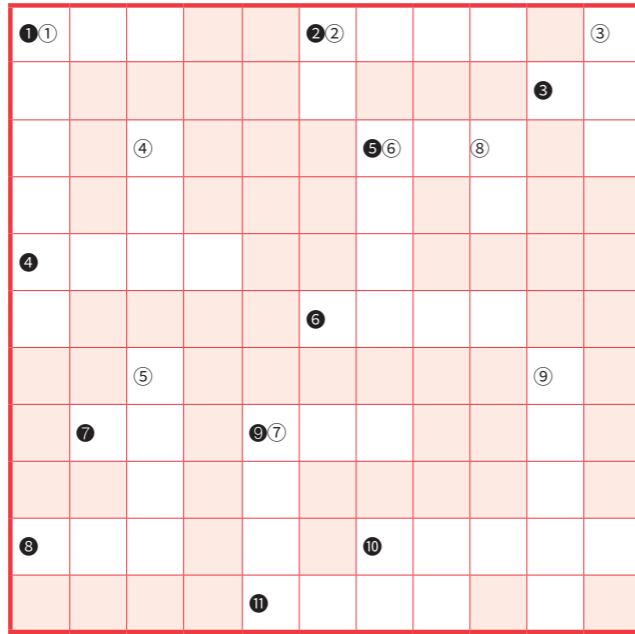
임직원의 눈 건강을 기업 경쟁력으로

눈 건강은 업무 집중도와 일상 컨디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IT, 금융, 디자인, 콜센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긴 직군에서는 눈 피로와 안구건조 관리가 업무 몰입도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림안과는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검진, 치료, 관리, 수술 연계까지 이어지는 의료복지 시스템은 임직원의 건강을 살피는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 관리의 새로운 파트너, 올림안과

의료복지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인재관리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안과는 강남권 접근성, 안과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적인 시설 구조, 실사용형 제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올림안과는 임직원의 눈 건강과 가족복지, 그리고 기업의 건강친화적 복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프리미엄 안과 의료복지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Fun Fun 퍼즐놀이



※ 퍼즐 정답자 중 무작위로 2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339호 상품증정기간: 2026. 10. 16.(금)까지 (본관 1층 국제교류원 사무실, 당첨확인용 학생증 지참)
※ 340호 퍼즐제출기간: 2026. 09. 30.(수)까지 (본관 1층 국제교류원 사무실에 제출)

학과: 학번: 이름:

가로

- 1. 모델들이 새로운 양식이나 최신 유행의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와 관객에게 선보이는 일
- 2. 자르지 않은 한 장의 종이를 주로 사용하여 접기만 하거나, 필요에 따라 덧붙여서 다양한 사물과 형태를 만드는 예술이자 놀이
- 3.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일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
- 4.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한자어
- 5. 학교나 특정 교육 기관에 입학 또는 재학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학비)
- 6. 특정 지점에서 출발해 계속 이동하면 한 바퀴를 돌아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형태의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
- 7.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뇌가 들어 있는 신체
- 8.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 바퀴를 굴러 움직이는 탈것
- 9. 전동기를 이용해 날개를 회전시켜 인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전기 제품
- 10. 레몬즙에 물과 설탕을 넣어 만든 새콤달콤한 음료를 뜻하는 단어
- 11.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차례상에 올려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가족·친척·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전통 음식

세로

- 1. 낙하산의 안전성과 헬글라이더의 활공성을 결합한 항공 스포츠 산버탈에서 발을 떼고 이륙해 하늘을 나는 레저 활동
- 2.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마지막 정거장 종점
- 3. 하루 동안의 가장 높은 기온(최고 기온)과 가장 낮은 기온(최저 기온)의 차이
- 4. 수성대학교가 있는 대구광역시 동남부에 있는 자치구
- 5. 재활용 및 폐기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 쓰레기를 재질이나 종류별로 나누어 거두어 가는 것
- 6. 가치가 서로 같은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는 일
- 7.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밝은 지혜를 뜻하는 사자성어
- 8. 귀중품을 넣어 두는 튼튼한 상자
- 9. 영화, 스포츠 경기, 공연 등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핵심 장면

<339호 퍼즐놀이 당첨자>

2610006	김*현	2306178	정*은
2610017	선*훈	2306183	조*언
2410002	강*지	2306107	오*연
2510009	김*웅	2306192	차*지
2510001	강*선	2306092	신*민
2510042	허*경	2306209	허*아
2409017	김*린	2206213	최*정
2306091	신*윤		

<339호 정답>

자	기	장	아	웃	도	어	소
유			침				찰
의	당		미	리	내		기
여	나		생	외			
신	출	귀	물				
상			방	학	숙	제	
	풍						사
묘	수	배	이	지			운
	지	네					드
소	쿠	리	치	오	케	스	트
			아	지	랑	이	랙



AI 고등직업교육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 Naicbitt)가 예측한 것처럼 다가오는 시대는 메가트렌드(Megatrends) 즉 하이테크·하이터치(High-tech·High-touch)공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AI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고도의 기술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성 등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미래에는 AI가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 그래서 AI시대가 되어도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다. 우선 AI에게 자료 분석 혹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구를 적실성 있게 질문을 할 능력이 긴요하다. 그리고 AI와 인공지능 기기를 숙련되게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는 마치 과거 지식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문서작성 능력과 정보관리 능력이 직장인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었던 것과 같다. 그 외 빠른 직무 수행과 원활한 협업 능력 등도 함께 필요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AI시대의 전문대학 졸업생은 “AI기술을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중견 업무수행에 적실성 높은 AI활용 방안을 적용하여 필요한 가치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인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에 AI기술을 연결하여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AI실무형 융합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자동차수리센터에서 일하는 자동차부품 담당자라고 하면 종래의 관행을 넘어 기후변화 도로사정 운행정도 등을 참고하여 교환 및 수리 등의 처방할 수 있다. 이와 동

시에 ‘AI실무형 활용능력’도 필요하다. 이는 AI를 대체기술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 업무수행시 협력도구로 활용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을 함으로써 서비스 등의 분야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기존 지역산업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전문 기술자에게 더욱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 따라 성장 발전하여 온 산업현장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하여 온 기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디지털전환(DX)을 수행할 역할이 요구된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감성을 이해하고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어 진다.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애완동물관리 능력이나 환자 케어 능력 등은 바로 이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전공별로 연마해야 할 실무기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학이나 제조업 및 IT분야에는 시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멀티코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 팩토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기술이 연마되어야 한다. 콘텐츠·디자인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즉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영상 제작 툴을 활용한 콘텐츠기획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건강관리 분야에는 AI진단 보조 시스템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관리 기술이 필요하고,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에는 AI마케팅 자동화 및 고객관리, AI 데이터 기반 운영 관리 등의 기술이 숙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분야별로 AI시대에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 등을 익히고 학습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고등직업교육기관에게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AI시대 고등직업교육 및 현장에 필요한 기술교육에 필요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수성이가 수성대학교에 도착했을까요?

